

2023년 광주일보 신춘문에 당선자 인터뷰

소설 백종익 “글 쓸 때나, 읽을 때나 즐기는 게 중요”

시 오후랑 “매일 저녁 단 한 줄이라도 쓰려고 노력”

동화 한유진 “아이들 말 귀기울이다 보면 ‘동심’ 만나”

문학 출판계 새해 핫 이슈는 바로 '신춘문예'다. 신춘문예를 시행하는 주요 일간지 신년호에 부문별 당선작이 발표되면 많은 문학청년(문청)들의 시선이 쏠린다. 그만큼 신춘문예 당선은 문청들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자 부러움이기도 하다.

기자는 최근 열린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상식에서 당선 작가들과 인터뷰를 했다. 신춘문예라는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 이들에게선 기쁨과 아울러 쉽지 않은 문학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일말의 두려움도 읽혔다.

백종익 소설가는 당선 소식을 묻는 질문에 “유선상으로 통보를 받았을 때 ‘꿈같은 일이 가끔은 현실로 이루어지는구나’라고 생각했다”며 “올해는 내 삶에 있어 상상이 현실이 되는 해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선 소식은 먼 곳에서 전해준 그리운 아버지의 율령이었다. 이제는 내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나이가 되었다”며 “묵묵히 지원을 아끼지 않은 집사람 그리고 가족과 이 영광을 함께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오후랑 시인은 “당선했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한편으로 ‘시를 쓰는 사람이라고 공식적

으로 알려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시인이 되고 싶었지만 막상 이름 뒤에 ‘시인’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매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한유진 동화작가는 “당선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이지 꿈만 같았다”며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웃고 울기를 반복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이들 작가들은 어떤 계기로 문학에 입문하게 됐을까. 저마다 인고의 습작 기간이 있었을 것 같다. 신춘문예 당선이라는 ‘티켓’을 거머쥐기까지는 짧게는 2~3년, 어떤 이는 십 수년을 도전하기도 한다.

“단편소설 읽기를 좋아했습니다. 책 런던의 ‘야성의 부름’을 재미있게 읽고 나서 단편의 짧고 굵은 서사의 형식에 매료되었다고 할까요. 그리고 3년 전부터 습작을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며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 관찰하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 주제에 조금씩 삶을 불리고 수정했습니다.”(백종익)

“문학은 늘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감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입문을 하고 말고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연재

가 ‘시록’이라는 책을 봤습니다. 그 책에서 ‘시는 누구나 쓸 수 있다’고 단언합니다. 조금 웃음이 나왔어요. 누구나 쓴다면 시인이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문구에 깊이 빠졌습니다. 누구나 쓸 수 있는 것을 믿었고 속는 셈치고 연습을 했습니다.”(오후랑)

“아이들이 다니던 유치원에서 날마다 그림책 읽어 주기 숙제가 있었어요. 아이들을 무릎에 앉혀 놓고 그림책을 읽어주다 보니 오히려 제가 그림책 세계에 푹 빠지게 되었죠. 그러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내용을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말에 귀 기울이다 보면 ‘동심’을 만나고 그 속에는 어른인 제가 깜짝 놀랄 정도의 숨은 뜻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글을 쓰기 시작한다고 곧바로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 향상이 되기까지는 슬럼프에 빠지거나 예상보다 습작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

백종익 작가는 쓰는 것을 즐기자고 마음을 먹게 되면서부터는 글이 막히면 막히는 대로 건너뛰었다고 한다. 그는 “부족하더라도 어떻게든 완성은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일단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지



2023년 광주일보 신춘문에 당선자들. 왼쪽부터 백종익 소설가, 오후랑 시인, 한유진 동화작가.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않았나 싶다”며 “글의 기승전결을 매듭지으려는 각오로 버텼다”고 부연했다.

오후랑 시인은 처음엔 쓰는 시들이 전혀 새로워 보이지 않았다. 그는 “매일매일 좌절하고 다시는 쓰지 않겠다고 다짐도 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러다 “다시 쓰고 싶어 하는 나를 발견했다. 회사 퇴근 길에는 시 낭송 파일을 들었고 매일 저녁 단 한 줄이라도 쓰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한유진 동화작가는 습작 시절에 여러 선생님과 글벗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는 “배우면서 제법 많은 글벗들도 생겼는데 그런 글벗들과 쓰고 합평하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제 이야기 스타일도 조금씩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문학활동 외에도 나름의 사회생활을 했다. 백종익 작가는 짧은 시절 건축기사가 일했다. “일산 신도시가 건설 중일 때 아파트 현장에서 건축 시공 기사로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며” 그러다 몇 해 전 퇴직을 했다. 퇴직 후 취미로 그림을 그렸는데 이만저만 공모전에서 수상을 했다. 기자는 그의

소설이 그림을 펼쳐놓은 듯한 생생한 묘사력이 특징이었던 점이 비로소 이해가 됐다.

오후랑 시인은 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로 일했다. “웃 가게도, 휴대폰 케이스 판매점도 하다가 지금은 다시 간호사로 일을 한다”는 그는 틈틈이 사진도 찍고 그리고 직장인 밴드에서 건반도 배우는 등 다방면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유진 동화작가는 그림책을 좋아하는 이들과 함께 ‘동화누리’라는 그림책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했다. “그림책을 읽거나 쓰기도 하고 도서관 행사나 동네 축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 창작하는데 적잖은 도움이 됐다.

이제 당선이라는 ‘자격증’을 쥐게 된 백종익, 오후랑, 한유진 작가. 이들 앞에는 길고 지난한 문학의 여정이 놓여 있다. 누군가 그랬듯이 신춘문예 당선은 말 그대로 당선일 뿐이다. 앞으로 어떻게 창작 활동을 열어나가느냐에 따라 문학의 열매는 각기 다르게 맺힐 것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성남·광주 작가들의 도시 역사 탐색

‘도시의 경계와 균열, 새로운 연결의 공공예술’ 교류전 이찬주·이나영·최지원·김경란·박성완·이뿌리 작가 참여

29일까지 이강하미술관

경기도 성남에서 현존하는 집 중 가장 오래된 태평동의 15평 주택, 성남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남한산성, 1971년 일어난 '8·10 성남(광주대단지) 민권운동'. 광주의 작가들에게 '성남'이라는 도시는 광주의 모습을 반추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성남과 광주 작가들의 도시 탐색 기록 '광주-성남 교류전 도시의 경계와 균열, 새로운 연결의 공공예술'전이 오는 29일까지 이강하미술관에서 열린다.

지난 2021년 국립현대미술관의 '공립미술관 추천작가-전문가 매칭' 프로그램으로 인연을 맺었던 이강하미술관과 성남아트센터는 지난해 예술가 교류 전시 개최 등을 위한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교류를 진행, 지난 5월 성남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이번 전시에는 성남에서 이찬주·이나영·최지원, 광

주에서 김경란·박성완·이뿌리 작가가 참여했다. 작가들은 도시의 역사를 탐색하고 태평동 공공예술작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오버랩 등 양 지역의 문화공간들을 둘러보며 도시교류 워크숍을 진행했다.

순창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이뿌리 작가의 '너비-깊이-높이'는 허름한 군용텐트와 그 속에 배치한 낡은 TV 속 영상을 통해 실제 군용텐트에서 도시난민의 삶을 살아야했던 성남시민들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김경란 작가는 광주 백운동과 성남 주택단지에서 촬영한 집의 벽돌 사진을 엮어 두 도시를 연결한 '직조된 도시'를 선보인다. 천정 위에 매달린 작품과 바닥에 깔린 거울을 통해 반사되는 작품들 동시에 감상할 수 있다.

박성완 작가는 '광주 서구 아파트 붕괴', '대인시장 이모' 등 광주 도시 풍경과 함께 5월을 보내는 모습을 담은 '이강하의 묘', 태평동 옛 기옥과 남한



성남과 광주 작가들의 도시 탐색 기록 '광주-성남 교류전 도시의 경계와 균열, 새로운 연결의 공공예술'전이 오는 29일까지 이강하미술관에서 열린다.

산성의 모습을 자신만의 거친 붓질로 표현해냈다. 자신이 등장하는 어릴 적 사진을 모티브로 삼아 회화 작업을 진행하는 이나영 작가는 6폭 병풍 '숲속의 아이들'과 '생일잔치' 등을 통해 익숙한 것을 낯설게 바라보는 경험을 제공한다. 밝고 화려한 생일잔치상과 상반되는 아이들의 무표정한 표정에는

깊이 가고, 무엇인가가 벌어질 것만 같은 숲속의 풍경을 바라보는 호기심어린 눈빛도 인상적이다. 공사 현장의 노동 경험을 풀어낸 이찬주 작가의 '도시민'은 3D 프린트로 뽑아낸 타워 크레인과 거기에 매달린 분필이 반복적으로 그려내는 궤적을 통해 현대인의 삶을 이야기한다.

'순간의 인상'을 모티브로 회화 및 미디어 작업을 하는 최지원 작가는 한지 위에 자유로이 그려낸 드로잉 작품을 매달아 관람객들이 그 사이를 거닐며 경계와 만남에 대해 떠올려 볼 수 있는 '돌아서 가는 길'을 전시한다.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뛰는 토끼 위에 나는 토끼’

광주신세계갤러리 신년 기획전, 12일~2월 19일

우주 비행사 토끼, 달을 따라 떠나는 토끼, 앞니를 드러내며 환하게 웃고 있는 토끼.

2023년은 계묘년(癸卯年) 검은 토끼해다. 장생과 지혜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토끼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동물 중 하나다. 특히 귀엽고 있는 캐릭터로 대중문화 등을 통해 우리에게 친숙하다.

민첩하게 강충강충 뛰어다니는 토끼처럼 목표를 향한 힘찬 도약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은 전시회가 열린다. 위기를 맞을 때마다 지혜롭게 헤쳐 나가는 토끼처럼 어려움을 딛고 행복과 희망을 성취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전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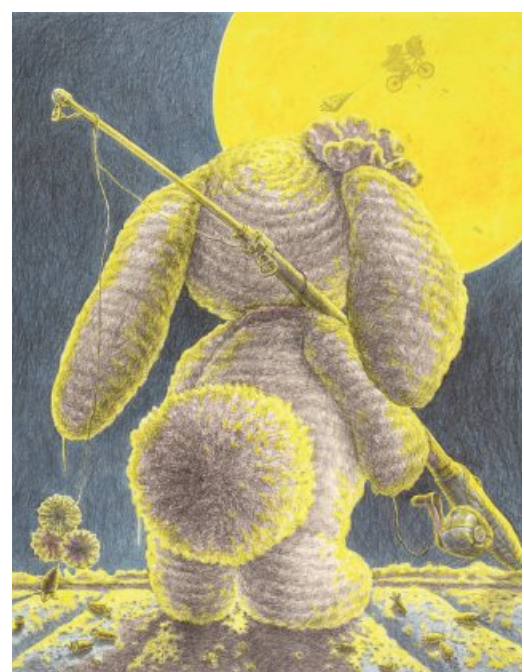
광주신세계갤러리가 신년 기획전 'Jumping Rabbit: 뛰는 토끼 위에 나는 토끼'전을 12일부터 2월 19일까지 개최한다.

전시작들은 토끼에 대한 다양한 상징성과 특징을 작가들 특유의 기발한 해석과 흥미로운 기법으로 표현한 작품들이다. 작가들이 상상력으로 풀어낸 작품들은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참여작가는 윤석문, 이두환, 이선미, 이선희, 이혜리, 임수범, 임현채, 최혁 등 모두 8명으로 그래픽티, 디자인, 회화설치, 회화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최혁 작가는 유쾌한 토끼 이미지를 전시장 벽면 가득 그래픽티로 표현한 '#2023 목격담기'를 선보이며 윤석문 작가는 애니메이션 느낌의 작품으로 관람객들을 만난다.

이혜리 작가는 한국화의 담백한 매력을 만날 수 있는 '모든 토끼가 배불리 먹는 날'을 선보이며 이선희 작가는 화려한 색감이 어우러진 유쾌한 토끼



임현채 작 '뉘러가게'

캐릭터 '우주토끼 말년병장'을 전시한다. 갤러리 내 아트숍에서는 전시작과 함께 참여작



이두환 작 '어떤날'

가들의 기존 작품도 홍보·판매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13일 황지운 작가 북토크

황지운 작가와 함께하는 북토크가 13일 오후 7시 광주 독립서점 소년에서 열린다.

2022 책읽는 동구 인문산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광주시 동구가 주최하는 이번 북토크는 황지운 작가의 독립출판물 '그리고 오늘의 행복을 모읍시다'를 읽으며 진행된다.

전남에서 살고 있는 6명의 여성을 구술체로 쓴 책으로 저자인 황 작가가 인터뷰 과정에서의 일화와 전남 여성들이 느끼는 지역적 차별점, 소수로 향해가는 사람들의 목소리 등에 대해 얘기한다. 책은 광주 독립서점 플랫폼 인디에서 구매할 수 있다.

황 작가는 문화일보 신춘문예에 '안녕, 피터'로 당선됐으며 '나는 에디터다'와 동화 '정정당당 해치의 그렁지 정치' 등을 선보이며 다양한 문학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북토크는 네이버 폼(https://forms.gle/pbqxK9skPKx1MGEw9)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이날 북토크에 참여하는 이들에게는 저자 싸인본이 제공된다. 문의 0507-1359-2625.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